# “임제선법이 海東으로”…석옥청공-태고보우 법맥 조명

## 태고종 · 후저우불교協 국제학술대회

**11월 26일 中 후저우 수성사서 개최**
**석옥청공-태고보우 전법 의미 살펴**
**이종수, ‘태고법통설’ 연원 전개 고찰**
**“보우 종조 태고종, 임제종 전통 이어”**
**상진 스님 “한국불교 종조는 태고보우”**



태고종 총무원과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는 11월 26일 후저우 수성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수성사 대웅보전에서 진행된 평화기원법회 이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중국 후저우=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종조 태고 보우 국사는 중국 절강성 후저우 천호암에서 임제 선사 18대 법손 석옥 청공 선사에게 인가를 받아 임제의 법을 고려로 전했다. 이는 불교 교류 전승의 국제적 사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 불교학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석옥 청공과 태고 보우의 법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과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회장 광천 스님)는 11월 26일 후저우 수성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석옥 청공과 태고 보우의 법맥 전승의 의미와 한중 불교 교류 전개 등을 살폈다.

특히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한국불교사에서 법맥의 전승-태고종 법맥을 중심’을 통해 ‘태고법통설’의 연원과 전개를 고찰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수 교수에 따르면 법통 논쟁은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으로 사찰들을 재건하는 동시에 정신적 구심점을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는 청허 휴정(1520~1604)의 법맥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휴정은 〈삼노행록〉을 통해 자신의 스승이 부용 영관(1485~1571)이고, 영관의 스승이 벽송 지엄(1464~1534)이라 했다. 하지만 허균이 〈청허당집〉 서문에서 ‘나옹혜근법통’을 제기하면서 법통 논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했던 것은 휴정의 제자 평양 언기(1581~1644)와 그 문손들이었고, 중관 해안(1567~?)도 그중 한명이었다. 해안은 〈설선의(說禪儀)〉 ‘후발(後跋)’에서 “임제 직전의 경우는 석옥 청공으로부터 청허 휴정에 이르는 8, 9위는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다”면서 ‘나옹혜근법통설’을 강하게 부정하기도 했다.

이종수 교수는 “해안의 노력은 꽤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후 등장하는 승려들의 행장과 비문들은 하나 같이 ‘태고보우법통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며 “이는 태고보우법통설은 최종적으로 조선 후기 불교계에 공인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수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유상 스님이 발제를 하고 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총평을 하고 있다.

이어 “태고 보우 법통의 공인은 조선의 선(禪)이 임제종임을 표방한 것이다. 조선의 선사들이 중국 임제종의 법통 계승을 정통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선교일치의 사상적 통합에 이어 법통의 단일화를 통한 종파의 통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조선불교는 단일 교단으로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19세기 말 서구로부터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조선불교계도 변화를 요구받았지만, 일제강점기를 맞게 됐다. 이 시기 불교 근대화의 과정에서 포교를 위한 승려의 결혼도 논의됐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는 불교 교단 분열을 가져왔고, 종조 논란으로도 이어졌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교단 분열의 과정에서 현재 조계종 측은 보조종조설을 제시했고, 이는 조선으로부터 내려온 태고보우법통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보조종조설은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면서 “교화승 측은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태고보우법통설을 계승했고, 이는 태고종이 조선 후기 전통을 계승한 종단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태고 보우가 석옥 청공에게 법을 구한 것을 통해 본 한중 불교 문화 교류’를 발표한 중국 절강 설두산 자성선사 감원 유상 스님은 석옥 청공-태고보우 법맥이 가지는 문화교류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유상 스님에 따르면 석옥 청공 선사의 선사상은 ‘불심이 곧 범심(凡心)’이라는 은일적 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태고 보우 선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유상 스님은 “태고 보우 선사는 정토종의 염불을 선종의 간화선에 결합해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며 “이는 선종 수행을 더욱 풍부하게 했으며, 한국 선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고 보우 선사와 석옥 청공 선사의 교류는 선종 법맥을 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국 선종 문화 교류와 융합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며 “이는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사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중국 선종 법맥의 전승(양유중 중국 남경대 철학과 교수) △14세기 고려 후기 불교사상과 한·중 불교문화교류 (박용진 국민대 교수) △원대 임제종의 법맥 전승 개요(구고흥 중국 길림대학 교수) △한국 선종 법맥의 전승과 문화교류(한영교 한국태고연구소 박사) 등이 발표됐다.

논문 발표 이후 이어진 총평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의 열리게 된 배경을 술회하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상진 스님은 “지난해 10월 북경 광제사 방문 당시 구고흥 교수와 종성 스님을 만나게 됐고, 이 자리에서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선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과정에서 종성 스님이 학술대회를 제안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태고종의 정체성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태고 보우 국사 선양과 율맥 조명 등 앞으로도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학술대회를 꾸준하게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보정 스님은 총평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중국불교 법맥 전승을 중심으로 양국 불교의 발전과 동아시아 문화 속 불교가 가지는 융합성과 다양성을 보여줬다”며 “승려 전법 및 교류 관련 문헌, 비명에 대한 발표는 풍부한 초국적 문화 연구 자료를 제공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2024년 한중불교문화교류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원로의장 호명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중앙선관위원장 구산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을 비롯한 태고종 사부대중과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총무원장스님도 대거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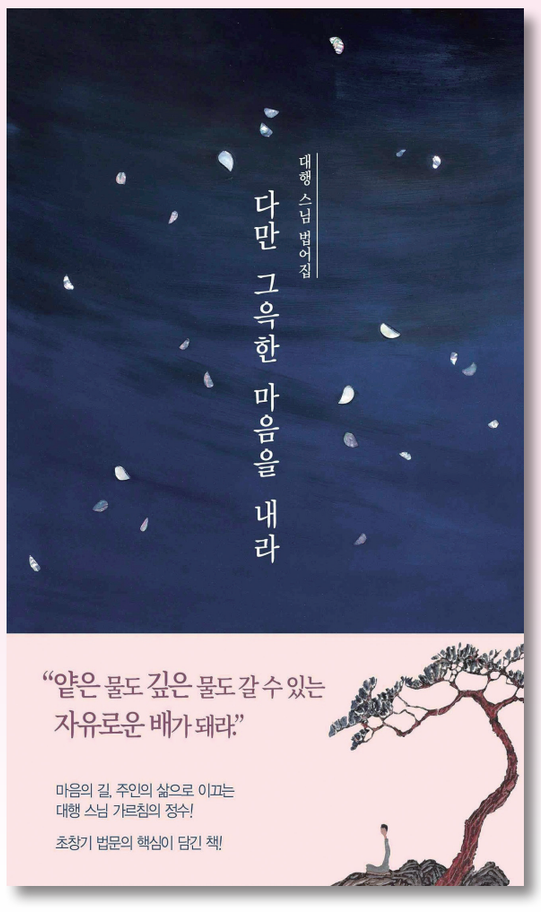
중국불교 측에서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종성 스님, 절강성불교협회장 광천 스님, 후저우시불교협회장 계룡 스님, 포수영 절강성 민족종교위원회 주임, 반우명 후저우시 통전부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과 중국 불교계는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수성사 대웅보전에서 평화기원의식을 봉행하고 보광명전에서는 학술대회 개막식을 진행했다. 기조발제에는 태고종 교육원장 재홍 스님이 ‘태고종 종조 태고 보우 국사의 정통성과 전통성의 전개’를 통해 태고 보우 국사의 생애와 법맥을 개괄적으로 조명했다.

재홍 스님은 “태고 보우 국사는 국내에서 깨우침을 이룬 후 중국으로 건너가 임제종 조사인 석옥청공의 법맥을 전승함으로써 중국 임제종맥을 계승하면서도 그에 그치지 않고, 고려선법의 주류를 형성했던 조계선법을 수용했는가 하면, 나아가서 수행과 깨침과 인가의 면모를 크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홍 스님은 태고 보우의 법맥이 환암 혼수(1320~1392)에게로 전해졌고, 이는 다시 구곡 각운-벽계 정심-벽송 지엄-부용 영관-청허 휴정으로 계승됐음을 강조하며 “태고 보우 국사는 고려 말기 한국 선종을 부흥시킨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선종의 정통을 이어받은 임제정맥을 한국에 확립시켰다. 이후 조선시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상승하는 선가 전통을 수립했다”고 상찬했다.

한편 상진 스님은 중국불교 측에 한국불교 전통 홍가사를 전달했으며, 중국불교 측도 상진 스님 등 태고종 주요 스님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우호를 다졌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